

장흥군, 비교우위자원 버섯류 특화산업 추진 탄력

200억 스마트특성화 사업 선정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센터 시설·장비 85종 구축

장흥군이 대규모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비교우위 자원인 버섯류를 활용한 특화산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6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총 200억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의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 전환을 위한 지역 성장 정책으로, 장흥군은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을 신규과제로 제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등 총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내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지원센터 시설 구축과 연구장비 85종을 구축하게 된다.

사업종료 이후에는 장비 임대, 기술이전 산업화를 통해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자립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균류는 포자나 영양 생식으로 번식하는 미생물로 버섯, 곰팡이, 효모 등이 이에 해당하며, 건강 기능식품 및 항암제 등 헬스케어 원료로 사용된다.

장흥군은 특히 전국에서 으뜸가는 버섯 생산단지인 장점을 살려 이번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하게 됐다.

진균류 관련 사업은 농가가 단순히 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버섯군사체를 배양해 기업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한 농가 수익으로는 버섯 원물 대비 4배 정도의 신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 출연기관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주관해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생산을 지원한다.

참여기관인 천연자원연구소는 비임상 효력 시험 등을 맡고, 한국한약진흥원에서는 안전성 인증,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유용균주 배양 관리 등을 전담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중순 장흥군수가 지난해 버섯산업연구원 재배 시험장에서 열린 현장보고회에서 관계자로부터 약용버섯 지역 적응 시험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장흥군 제공>

정중순 장흥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자립 기반 확충과 함께 바이오산업 연계 기업 유치, 지역 버섯재배 농가 소득 창출 등 많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공공·민간 숙박업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협약



함평군은 지역 내 공공·민간 숙박업체와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확보·제공해 이재민의 감염병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민간숙박시설 8개소(공공4, 민간4)를 추가 지정해 181객실, 수용인원 724명(4인1실 기준) 규모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했다.

협약 체결한 공공·민간숙박시설은 이재민 발생 즉시 이재민 전용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운영된다.

군은 기존 지정·운영 중인 32개소 임시주거시설이 학교와 관공서, 경로당 등 집단 거주시설로 집단 감염병 예방과 차단, 사생활 보호와 위생 관리 등의 강화가 필요한 만큼, 이번 협약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재해구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담양군은 문화도시추진단을 주축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진행되는 예비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지원할 계획이다. 담양의 대표 축제인 대나무 축제. <광주일보 자료사진>

담양군 '예비 문화도시' 지정 준비 본격 착수

6월 지정 공모 지원 계획

담양군이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문화도시추진단을 주축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진행되는 예비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실현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동안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군은 이를 위해 실질적 협업·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주도형 문화도시를 위한 현장형 의견 수렴, 간담회를 통해 문화도시 비전을 새롭게 선포할 예정이다.

군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2021년 주요 사업으로 ▲바퀴달린문화도시, 담양 ▲라운드테이블 '문화도시 인 작당소' ▲청년반장 '담양각색' 등 담양의 문화와 가치를 기록하고 주민 주도의 문화도시를 기획·구상했다.

임선이 문화도시추진단장은 "담양만의 고유 자원이 축적돼 발현되고 있는 곳으로, 그만큼 국민, 예술가, 생활예술인, 문화활동가,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내 왔다"며 "그동안 축적된 주민의 힘이 문화가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담양군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문화도시추진단을 구성하고 구 관사에서 지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은 '인문학 가옥'을 문화도시 거점 장소로 운영하고 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강진군, 투명·공정한 군민 중심 행정 편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74건 선정 참여자·추진과정 군민에 공개

강진군이 주요 정책과 예산집행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참여자 실명과 추진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군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4일 심의위원 8명으로 구성된 강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억원 이상 건설

사업 68건,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6건 총 74건을 2021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사업은 군민들이 연중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내용과 업무 담당자 실명 등을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군민과 함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정책실명제의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군정 주요 정책 개방과 공유를 통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최근 5년간 264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군, 사회적기업 창업 돕기 아카데미 운영

31일까지 희망 군민 모집

화순군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돕기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아카데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카데미는 6월8일부터 7월6일까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총 5회 열리고,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 맞춤형 컨설팅은 9월까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나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을 접하고 국·도비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며 "지역에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겨나 상생하는 지역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나주시, 출산·영유아 가정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나주시가 출산 및 영유아 가정의 건강한 새 출발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임신부와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담, 영아 발달, 양육교육, 정서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 가정에는 8주 이내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운동·수면 등 산모 건강상태 확인과 수유·육아환경교육, 신생아의 건강발달평가 등 전문상담과 육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우울감, 스트레스를 경험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가정에는 출산 전부터 아기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25회 이상의 전문가 방문을 통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돕는다.

나주시보건소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 이수 인력들이 배치된다.

김영식 나주시 보건소장은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 단계부터 출산, 육아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